

광풍과 폭주 반도체에 미쳐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6월 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가 경제성장 하락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총력으로 반도체, AI 사업에 재정을 쏟고, 법·제도를 통해 밀어주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속도전·선도전·총력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하며, 무기는 무엇이고 비용은 어디서,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인지, 사회적으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아무리 반도체와 AI 광풍이라지만 1,500조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국가사업(기업 합산 4,700조 투자비용 예상)을 충분한 검토와 조사, 사회적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한다는 점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특정산업(반도체, AI)과 특정자본(SK, 삼성 재벌 등)에 이렇게 '올인'(All-In)하는 경우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집단적 망상입니다.

반도체·AI 호황이 언제까지 갈 지 알 수 없지만, 호황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뻔합니다. 자본이 빨아들인 이윤이 노동자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될 리 없습니다. 돈은 국내 재벌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몰아주고 손실과 피해는 전체 사회가 떠안게 되는 꼴입니다.

메가프로젝트, 충남에서 먼저 진행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정부가 전국의 거점에서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시작은 충남지역입니다. 삼성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천안·온양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8월 19일 아산 배방에 삼성전자 온양공장 증설을 승인했습니다. 어느 언론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파격적인 행정절차 단축 덕에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진 올해 9월에 공식 착공에 들어간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하지만 충남지역은 수십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댓가로 그동안 오염물질을 감내해왔습니다.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충남지역에 송전탑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으로 충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물 고갈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와 반도체 공장 노동권 등 지역사회의 저항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충남지역사회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전국의 연대행동을 위해 움직일 때입니다. 오늘(9/7) 지역에서 메가프로젝트의 문제를 살펴보고 뜻을 모으는 자리가 열립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동향&전망

이윤은 자본에게 손실은 사회의 몫

이 도박의 위험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전력과 물이 사용됩니다.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으로 침투됩니다. 전기와 수도 비용이 오르며, 민간자본이 공공재인 전기, 수도, 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과 땅이 필수인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습니다.

피지컬AI는 제조업 노동자에게 노동유연화를 넘어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메가프로젝트에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권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노동환경이 어떤지, 충남 하나머티리얼즈, 부산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의 노조탄압 현실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메가특구법' 또한 자본천국·노동지옥을 열 것입니다.

많은 산업전문가들도 메가프로젝트가 '불가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 AI에 국가적 명운을 걸어야 하는지 의문과 우려를 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노동자·농민이 희생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메가프로젝트 대응 토론회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6.09.07 (월) 15시
충남경제진흥원 252호 강의실

- 발제1** 기후정의와 3대 메가프로젝트(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운영위원장)
- 발제2** 세종·충남에서 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삼성·SK투자계획의 효과와 문제점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1** 3대 메가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토론2** 농민 입장에서 바라본 3대 메가프로젝트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3** 충남지역의 현안과 대응방향 제언 (이정호 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